

# 특허수수료 체계, 쉽고 간단해진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금번 개정은 지난 98년 1월 수수료 인상 이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첫 개정으로 그간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시행 등에 따른 부분적인 개정을 한 적은 있으나 전면적인 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수료 인상 없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체계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수수료 징수규칙은 각각의 수수료가 일정한 규칙 없이 배열되어 있어 출원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항목을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산정방식도 등록료는 3항 초과 1항당 가산료를 받고 심사청구료는 1항 초과 1항당 가산료를 받는 등 서로 상이하여 출원인이 혼동할 우려가 많고 체계가 너무 복잡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번 수수료 징수규칙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총 수수료 수입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면서 출원인의 편의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특허관련 수수료, 실용신안관련 수수료, 의장관련 수수료, 상표관련 수수료 등 권리별로 관련 수수료를 분류하고 각각의 권리별 수수료를 산업재산권 절차에

따라 출원관련 수수료, 등록관련 수수료, 심판관련 수수료로 나누어 출원인이 쉽게 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20면 초과, 1항 초과, 3항 초과 등 가산료 산정시 기본면 및 기본항을 폐지하고 모든 면 또는 항마다 가산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산료는 인하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변리사 등의 도움 없이 쉽게 수수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오납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전자문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 전자출원시에는 가산료를 없애고 기본료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보정료, 심판청구료 등도 전자문서 이용시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출원서류의 양이 특히 많은 유전공학관련 출원인의 출원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출원료 등의 70%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50% 감면을 상시화하여 감면제도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국·공립대학이 소유한 특허권 등을 전담조직에 이전할 경우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 신청료를 면제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 일본인 기술고문 '특허 도둑'으로 구속되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지난달 3일 첨단 반도체의 일종인 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을 경쟁업체에 몰래 빼돌린 전 S반도체 부사장이인 일본인 K씨와 한국인 이모이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S사의 기술고문으로 영업돼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이 회사의 백색 LED 제조 공법에 대한 기술 자료를 J사에 넘겨준 혐의다.

K씨는 경쟁업체인 J사로 회사를 옮기면서 2년간 동종 업계 취업금지 조항을 어긴 채 연봉 8천만원과 각종 부대혜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전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색 LED 기술은 휴대전화나 각종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관련기술로 일본 업체를 제외하고는 S사가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LED 시장의 80%를 점유해온 S사는 이 기술로 연간 1천2백억원 매출을 올렸으나 이번 기술유출 사건으로 1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심심풀이 껌, 기능성 식품 대표주자로 우뚝!

심심풀이로 씹고 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던 껌이 기능성 식품의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단순한 기호품으로 여겨왔던 껌에 특수한 성분을 첨가하여 입냄새 제거, 충치 예방, 치아 미백 등의 입속 건강 기능뿐만 아니라 니코틴 제거, 숙취 해소, 질병 예방 등의 몸속 건강 기능까지 생각한 기능성 껌에 관한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껌이란 씹는 즐거움이라는 기본 기능과 맛, 향, 색깔 등의 기호성만을 추구하던 종래의 껌과는 달리, 껌에 특수한 성분을 첨가하여 신체리듬 조절, 질병 예방 등의 신체 조절 기능이 효율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든 껌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껌 시장 규모는 국내 제과시장의 9~10%인 3천4백억원 대로 추산되고, 국내 껌 시장에서 기능성 껌이 차지하는 비율은 75%에 이르는데, 이는 2년 전인 2000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4.5배, 비율로는 2.2배 성장한 것이다.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능성 껌의 특허출원은 '98년에 8건으로 전체 껌 특허출원의 50% 정도였으나, 2002년에는 14건으로 전체 껌 특허출원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98년 이후 기능성 껌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껌이 종래의 충치 예방 및 입냄새 제거라는 입속 건



▲ 최근 양치 후에 씹는 껌으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기능성 껌 자일리톨

강 증진의 역할(39%) 뿐만 아니라, 건강개선 성분 및 질병 예방 성분을 함유하여 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61%)하는 것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기능성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내 껌 시장에서 기능성 껌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맛, 향, 씹는 느낌 등의 기호성을 보완한 기능성 껌 및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을 복합적으로 함유한 다기능성 껌 등 차별화된 껌을 맛보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산업, 핸들러 기술 특허분쟁 확산

핸들러 및 칩 마운터 업체인 미래산업(대표 이형연)이 넥사이언에 이어 1~2개 장비업체를 특허침해 혐의로 추가 제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산업과 넥사이언의 핸들러 기술특허 분쟁이 타 업체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10일 미래산업은 동종업계의 유사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추가로 제

소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래산업은 추가업체 제소는 물론 이를 통해 모방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해외수출을 전면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과 넥사이언 간의 특허 분쟁은 특허청의 특허판결을 거쳐 현재 수원지법에 계류 중인데, 미래산업 측은 특허청의 특허심판결에서 자사의

핸들러 특허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받은 만큼 법원을 통해 상대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산업 관계자는 '특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한편 모방기술로 구현된 장비의 해외수출을 중지 시킴으로써 해외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 특허 획득 가능성 빨리 알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해 특허출원을 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보다 더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국제출원제도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하나의 출원서만으로 이들 국가에 모두 출원한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특허협력조약(PCT)에 의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주관 하에 1978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국제출원을 하면 먼저 지정된 국가의 특허청에서 국제조사와 출원인이 희망할 경우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되는데, 국제조사 단계에서는 동일한 기술(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국제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출원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개별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WIPO에서는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한 국제출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중 하나로 국제조사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만 하던 것을 현재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하고 있는 특허성 판단까지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인은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국제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사문의]**  
 nic125@hanmail.net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